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10>]100년에 걸친 원산지 논란 종지부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4.21. 14:30:29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9. 한라산이 고향인 왕벚나무

복수초, 개나리, 진달래, 목련으로 시작되는 봄의 꽃잔치는 벚꽃에서 절정을 이룬다. 제주에서도 화려하게 수놓은 왕벚꽃잔치가 매년 열린다. 전국 곳곳에서 가장 각광받는 가로수가 왕벚나무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왕벚나무 일색”이라고 투정도 부린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따갑기보다는 왕벚나무가 이미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왕벚나무에 대한 애정은 이 나무가 제주특산의 독립종으로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고향이 바로 한라산이다.

제주도 특산인 왕벚나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귀포 서흥성당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타케(Emile Joseph Taquet, 1873~1952) 신부가 관음사 일대에서 채집한 것이 시초이다. 이 표본(표본번호 4638번)을 기준으로 1912년 독일 베를린대학의 케네(Koehne) 박사가 왕벚나무로 감정한다. 김찬수박사는 “이 표본은 자생 왕벚나무의 표본으로서 최초”라고 말한다.

왕벚나무는 제주에 온주밀감이 재배되기 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타케는 1911년에 왕벚나무 채집품을 일본 아오모리에 거주하던 프랑스 출신의 '포리'(Faurie R. P, 1847~1915)신부에게도 보냈는데 포리가 그 답례로 14그루의 온주밀감 묘목을 타케에게 보냈다. 이것이 서귀포에 온주밀감이 재배된 효시다.

제주 왕벚나무는 식물 분류학자들을 중심으로 1백년에 걸쳐 집중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식물에 관심을 갖거나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인 식물의 원산지가 과연 어디일까 하는 궁금증은 자연스러운 현상. 더욱이 그 식물의 원산지에 대한 논란이 학계의 중심에 부각돼 있고 경제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면 그런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1964년 남원읍 신례리와 봉개동에 자생하는 왕벚나무 6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최근까지도 관음사와 어리목, 한라산 곳곳에서 수십그루의 자생 왕벚나무가 발견되고 있다. 자생 왕벚나무의 잇따른 발견은 원산지가 한라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라산에 분포하고 있는 자생 벚나무는 왕벚나무, 섬개벚나무, 한라벚나무, 벚나무, 탐라벚나무, 관음왕벚나무 등 13분류군에 이른다. 제주가 벚나무 종의 중심에 있다는 증거다. 이 가운데 왕벚나무 등 5종이 제주에서만 확인되는 특산이다. 관음왕벚나무와 탐라왕벚나무는 몇년전 새로운 종으로 추가된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왕벚나무 자생지를 추적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고 있는 것은 학문적 관심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왕벚나무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왕벚나무는 일본의 것이며 그들에 의해 대량 번식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지로 전파된 것으로 인식됐었다. 오래전부터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가로수로 심어진 왕벚나무도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대량 번식 도입된 재배종이기 때문이다. 벚꽃이 일본 국화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과거 우리 주변에 심어진 왕벚나무가 한때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라 해서 탐탁지 않게 여겨 베어낸 것도 흔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권장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3년 산림청 남부육종장(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팀에 의해 제주 왕벚나무의 조직배양 시험이 성공을 거둔 것은 뒤늦게나마 왕벚나무의 유전자 보호와 대량증식에 물꼬를 튼 개가였다. 난대산림연구소는 현재 국내외 벚나무를 집결한 보존림을 10ha에 걸쳐 조성중에 있다.

작년 이맘때는 조직배양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 제주산 왕벚나무 후계목이 정상적으로 자라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노령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제주시 봉개동 소재 천연기념물(제159호) 왕벚나무의 유전자 보전을 위해 조직배양으로 증식된 나무가 비로소 꽃을 피웠다.

난대산림연구소가 지난 93년부터 조직배양을 통한 왕벚나무 대량증식 기술개발에 착수, 96년에 성공한 이후 그해 봉개동 천연기념물 자생지에 40그루와 97년에는 서귀포 돈내코 일대에 30그루를 심었는데 그 결실을 본 것이다.

후계목의 개화는 학술적으로 이미 세계 유일의 자생지로 규명된 제주산 왕벚나무가 사라져가는 유전자원의 영구 보전은 물론 자원화 및 대량 증식의 길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진설명]한라산 관음사 야영장에 있는 왕벚나무 자생지./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